

# 7월의 농사 메모



## 논 농사

이달중 벼의 생육은 대체로 우수형성기, 수잉기, 출수기에 해당되 이때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하는 동시에 벼의 산소요구도도 가장 큰 시기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 물관리

▲ 한번 대어준 물은 완전히 없어진후 1~2일동안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다시 새물을 대어주는 물걸러대기를 계속 실시한다.

▲ 물걸러대기는 모래논, 누수담,

간척담을 제외한 모든 논에 실시하며 특히 칠수담, 습담, 냉수용출담에서 효과적이며 신품종은 재래종보다 산소요구량이 크므로 반드시 실시한다.

▲ 찬물이 나는 논은 찬물돌림 갈개를 만들어 논에 찬물이 널리 퍼지지 않게 한다.

### □ 알거름주기

▲ 알거름은 이삭이 80%정도 패었을 때 주며 주는 양은 10a당 2~3kg을 가는 모래와 섞어서 한곳에 물리지 않도록 고루 뿌려준다.

▲ 알거름은 엽록소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는것 이므로 벼잎이 황록색

## ◆ 이달의 농사때모 ◆

또는 담황색을 띄울때 반드시 주도록 한다.

▲ 특기 후기에 거름기가 떨어지는 모래논, 해식은 논등 추락현상은 및 간척지논에서 효과적이다.

## 밭 농 사

### □ 콩밭관리

▲ 순지르기는 본잎이 6~7장 나왔을때 5장 정도만 남기고 잘라준다.

▲ 8월중 김매기는 콩 생육에 지장을 주어 수량이 떨어지니 풀이 있는 콩밭은 큰 풀만 뽑아준다.

▲ 잎말이명나방, 콩나방들이 발생되기 쉬우므로 칩투성 살충제를 한번 뿌려 피해를 막고 오갈병이 발생된 포장은 발병포기를 뽑아 전묘아 태우거나 깊게 묻도록한다.

### □ 고구마밭관리

▲ 생육초기에 김매기만 잘 해주면 관리에 풀이 별로 안드는 작물이므로 싹을 심은후 40~50일후에 김매기를 잘 해준다.

▲ 덩굴에서 뿌리가 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덩굴을 뒤집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줄기가 부러지는등 해로운 점이 많으므로 피해야한다.

▲ 고구마 잎을 식용으로 쓰기위

해 잎을 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구마 소출에 해로우니 너무 일찍 따지 않도록 한다.

## 채 소

### □ 김장무우·배추파종

▲ 무우파종량은 10a당 점파할때는 5~6dl를, 조파를 할때는 10dl를 준비한다.

▲ 배추는 육묘재배시 0.7dl를, 직파(점파)재배시에는 1.0~1.5dl를 준비하도록 한다.

▲ 연작지는 반드시 석회를 사용하여 흰빛석음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한다.

## 과 수

### □ 관배수작업 토양관리

긴장마로 일조부족과 높은 습도로 인하여 나무가 연약해지고 장마후 가뭄이 지속되면 연중 증발량도 가장 많아 가뭄피해를 받게 되므로 자주 관수해주어 과수의 생육과 비대를 도와준다.

장마후 과원은 많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양분경합이 심하고 채광과 통풍이 잘 안되고 병해충의 서식처가 되므로 제초작업을 철저히 해준다. <농진청 기술공보담당관실 제공>